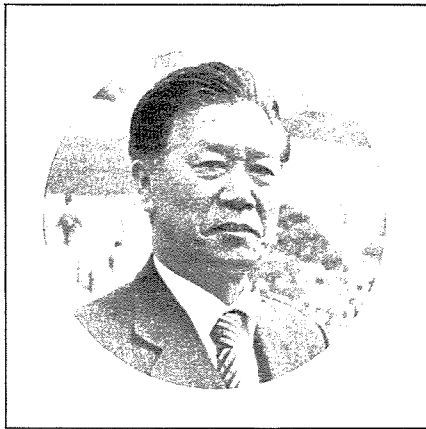


# “治療放射線科學 인식제고에 힘쓰터”

## 放射線治療로 癌환자회생에 보람



金楨鎭 회장

- 최근 醫工學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高
- 成能진료기기의 발달은 특히 放射線 醫學
-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 동안 진단분야의 중요성에 밀려 제 역할
- 이 미흡했던 治療放射線科學 분야도 최근
- 에 와서 점차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
- 함에 따라 고성능방사선치료기의 도입에
-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또 독립된 專門醫
- 과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새로운 출발을하
- 게 되었다.
- 治療放射線科學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
- 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82년 말에
- 설립된 大韓治療放射線科學會 金楨鎭회장
- (한양대 의과대학교수)을 만나 治療放射
- 線科學분야의 당면과제와 장래 계획이 무
- 엇인가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癌治療에 있어서 放射線治療는 필 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癌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1차 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후에는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특히 癌가운데서도 두경부암이나 자궁암 같은 것은 다른 어느 부위의 암보다도 방사선치료로 탁 월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깐요.』 金楨鎭회장은 임상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放射線科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암치 료에 있어서 방사선치료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창립이후 현재까지 學會를 이끌어온 金楨鎭회장은 放射線科는 주로 희망이 없는 환자가 찾아가는 곳으로 잘못 認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사들 까지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病의 治療에서 완치뿐만 아니라 生命을 좀 더 연장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때 그러한 인식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환자는 물론 일부 의사들의 그릇된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 줌으로써 방사선 과학의 올바른 이해와 임상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보급시키는 것이 학회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라고 덧붙인다.

방사선과는 크게 진단방사선과와 치료 방사선과, 그리고 핵의학과로 구분하는데 진단방사선과는 방사선을 이용해 병을 진단하

는 반면 치료방사선과에서는 주로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放射線科가 설치돼 있는 병원은 7개소이며 방사선 치료기를 갖춘 병원은 26개소에 달한다. 『이는 日本의 5배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시설면에서 볼때 선진외국에 비해 많이 뒤져있는 현실입니다. 방사선치료기는 1백만달러 이상의 高價이므로 웬만한 병원에서는 도입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지요. 따라서 高價의 시설비가 이 분야 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金회장은 의학분야중에서도 가장 수지타산이 안맞는 곳이 이 방사선과라고 밝히면서 이 시설만 가지고는 병원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각 병원마다 시설을 갖추수는 없으므로 이미 설치돼 있는 기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힌다.

또 일단 시설만 해 놓으면 그만이라는 일부 병원당국의 인식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고가의 장비를 갖춘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좋은 시설과 함께 이를 다룰 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金회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료방사선과 전문의 기근 현상이라고 밝히고 의과대학생들 가운데 방사선과를 전공하려는 학생수가 많지 않음을 아쉬워 한다. 『그도 그럴것이 설사 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라도 고가의 고성능치료기를 갖춘 병원을 개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内科나 다른 분야에 비해 워낙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治療放射線科 전문의 과정은 의학적인 필요성에 의해 國民醫療法이 개정됨에 따라 1983년도에 1년차를 모집, 86년도에야 제 1호전문의가 탄생됩니다. 이들은 방사선과 중에서도 치료방사선을 전공한 사람들로 앞

으로 이분야의 연구 및 발전에 큰 몫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金회장은 지금까지 이 분야 종사자 대부분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므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의들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회는 내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 배출될 전문의에 대한 보수교육을 외국 연수와 아울러 시킬 계획이라고 밝힌다.

大韓治療放射線科學會는 82년 10월8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치료방사선과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그동안 해마다 두차례씩 학술발표회를 갖고 회원들의 연구결과 발표와 아울러 외국 저명학자 초청 학술강연회를 가진바 있으며 83년 10월에 창간된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를 年 2회씩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 보수교육을 겸한 月例集談會를 실시, 회원들의 자질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현 회원수는 모두 2백50여명에 달하지만 치료방사선과에만 종사하는 회원수는 50여명에 불과하다고.

『회원수가 많지 않아 학회지 발간 이랄지 학회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어서 회원수가 늘게되면 우리 학회도 다른 의학분야와 마찬가지로 보다 활발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86년에 임원개선)동안 미약하나마 치료방사선과학의 올바른 인식제고에 힘쓰고 학회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金회장은 끝으로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플때가 환자가 돈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고루 확대되어 누구나 손쉽게 진료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記)